

- COUNTRY: KOREA
- MEDIA: Car Life
- DATE: April 2006
- PAGE/SIZE: p. 386 – p. 389 (colour)

(HEADLINE) Western Australia – a place for Karri, a king of Eucalyptus

### Summary Translations

There are about 800 types of Eucalyptus in the primitive forest in the largest Australian state, WA. Scenic ocean road along with South-west coast. Deep forest covered the sky. South-west region is called as a land of Karri – **Gloucester National Park and Walpool National Park.**

Fantastic drive in the forest of Karri – **Pemberton 4WD off-road adventure. Discovery Tours: [www.pembertonwa.com](http://www.pembertonwa.com) (Phone: 08-9776-0484)- Safari guide Graham- Arkana 13-seat 4WD. [www.westernaustralia.com](http://www.westernaustralia.com)**

**CX booking center: 02-311-2800 [www.cathaypacific.com/kr](http://www.cathaypacific.com/kr)**

### Photo Captions:

- |        |   |
|--------|---|
| P. 388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and cruiser in the sand dunes</li> <li>2. Fantastic off-road drive in the land of Karri.</li> <li>3. Delicious lunch in the picnic</li> </ol>                          |
| p. 389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Ironic control of fire with fire during the dry season in the land of Karri</li> <li>5. A drive in The <b>Pinnacles</b></li> <li>6. A hole dug by kangaroos.</li> </ol> |

# 자동차생활

별책부록



9 771228 300005  
값 9,000원

The Best Automobile Magazine [www.carlife.net](http://www.carlife.net) **CARLIFE**

2006 | 4

현지 취재

## 사브 아이스 익스피리언스에 가다 고성능 새차와 현실적인 친환경차 두드러진 제76회 제네바 오토살롱

ROAD IMPRESSION

### BMW M5 & 550i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벤츠 C230V  
재규어 뉴 XJ6 3.0/포드 뉴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NEW CARS

쌍용 렉스턴 II  
폭스바겐 제타·파사트 바리안트  
렉서스 ES350 & RX350

GIFT 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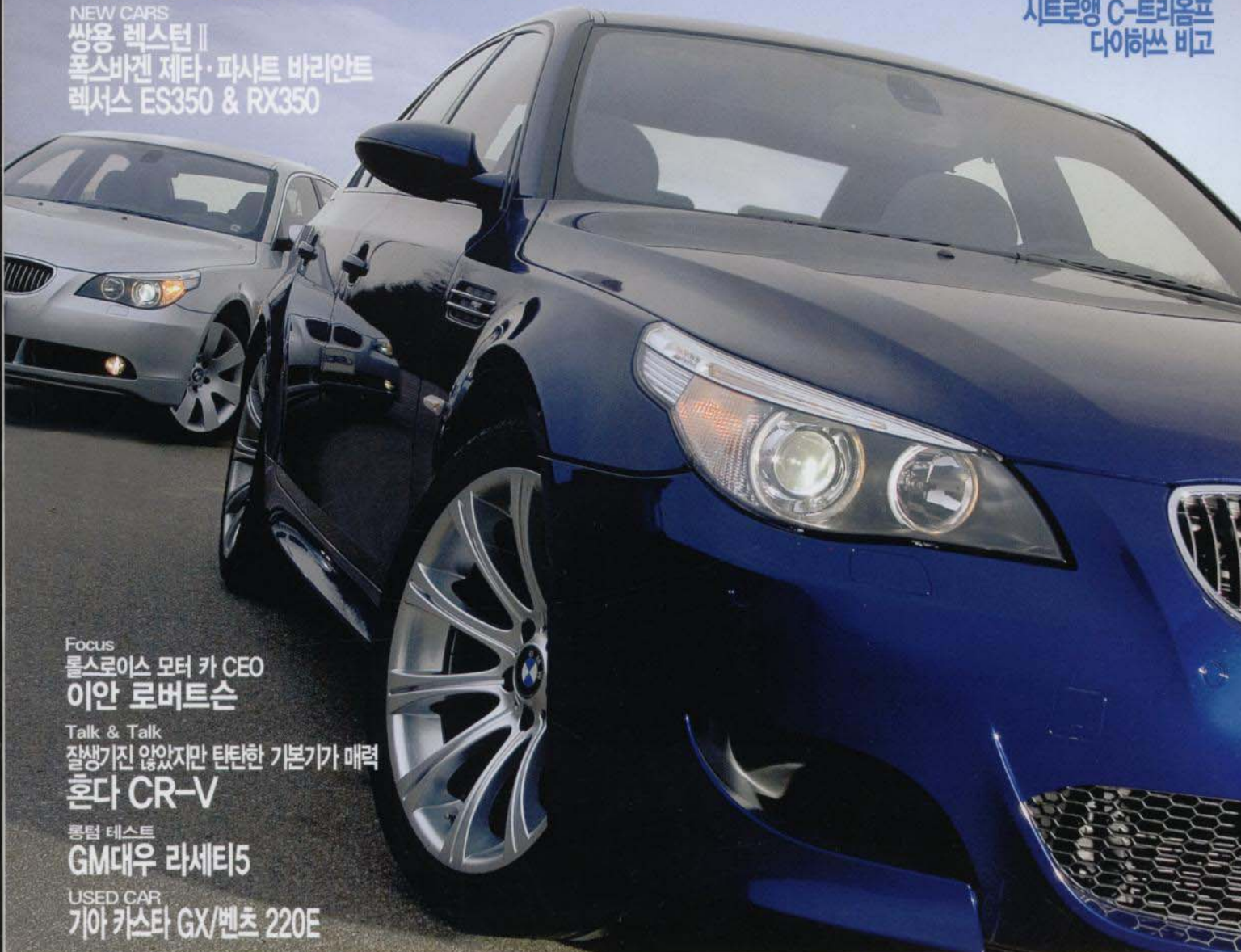
## BMW Z4 3.0i & 폭스바겐 뉴 비틀 카브리올레

GUIDE

새내기들에게 권하는 맞춤 차  
렌트카, 그것이 알고싶다  
오너들이 말하는 수입차 라이프  
2006 부산국제모터쇼에 가보자

해외 뉴 모델

혼다 제스트  
시트로앵 C-트리옴프  
다이하쓰 비고



Focus

롤스로이스 모터 카 CEO  
이안 로버트슨

Talk & Talk

잘생기진 않았지만 탄탄한 기본기가 매력  
혼다 CR-V

롱텀 테스트

GM대우 라세티5

USED CAR

기아 카스타 GX/벤츠 220E

책 속의 책 Travel LIFESTYLE 포토기행·논산(論山)/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향기 가득한 봄 축제로의 초대/영화 속의 자동차·파이어월

»»» MOTOR SPORTS 2006 국내 자동차 경기 전망/F1 제1·2전/WRC 3전/챔프카/F1팀 순례·르노/드라이버 열전·V. 리우치/레이싱걸·김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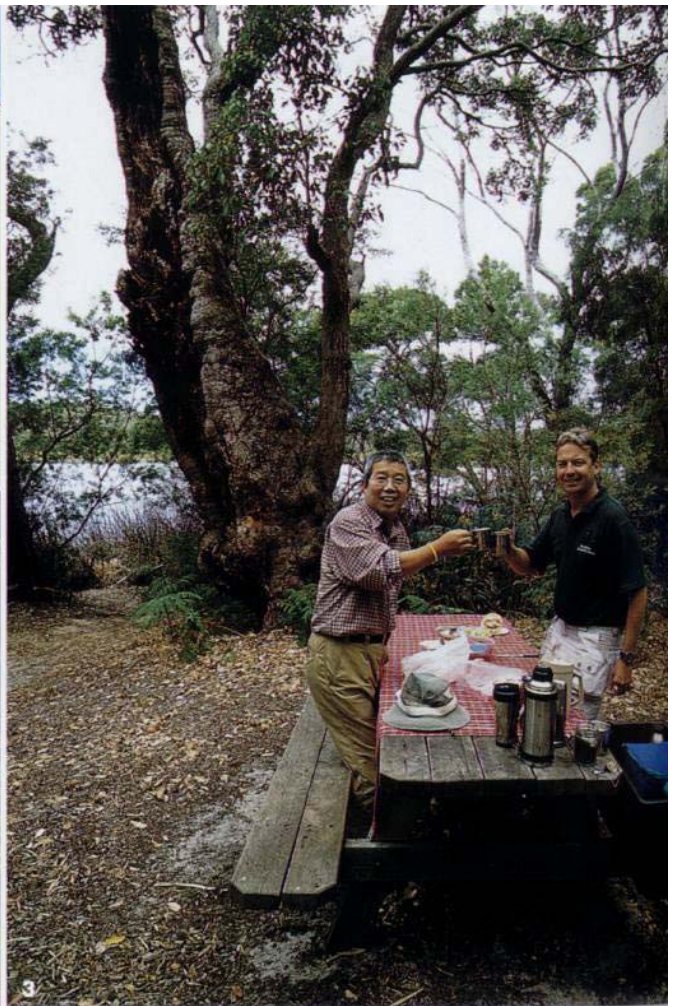




유칼립투스의 황제, 캐리가 사는 곳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거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는 800여 종의 유칼립투스 나무 중 황제라 불릴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캐리 나무가 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한때 무분별한 벌채와 개간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지금은 인간의 보호 아래 신비로움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산불은 여전히 큰 위협이다. 이를 막으려는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원시림을 관통하는 드라이브 코스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매력을 전한다 조주형 <만화가, 여행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는 호주의 한 주(州)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하루 종일 차를 달려 저녁나절 지도를 펴놓고 온 길을 보면 “우리가 뱅글뱅글 돈 거야?” 라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온종일 달린 거리가 고작 지도 위에서 1~2cm밖에 안 된다. 이 주는 우리 남한의 33배, 그리고 서유럽 전부와 같은 어마어마한 땅덩이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도 ‘퍼스’(Perth)에서 인도양 해안선과 평행선을 그으며 남쪽으로 내려가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왼쪽으로 꺾여진다. 우리는 오대양 육대주라 배웠는데 호주사람들은 ‘육대양 육대주’라 우긴다. 호주의 서쪽이 인도양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호주대륙의 남쪽바다를 호주인들은 ‘남해’(South Sea)라 부르며 대양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 유칼립투스의 첫 번째 적은 인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 해안선을 따라가면 호주 최고의 드라이브코스가 기다린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는 내륙으로 40km 가까이까지 연중 강우량이 1,100mm나 되고,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이어지며, 땅이 비옥해 원시림이 하늘을 덮는다. 호주는 유칼립투스(Eucalyptus)나무로 뒤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억겁의 세월이 흐르며 유칼립투스는形形色색의 800여 종류로 분화한다. 분화된 800여 종 중 최고의 종은 캐리(Karri)다. 가장 크고, 가장 넓게 군락을 이루고, 기후와 땅에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유용한 목재로 이용되는, 가히 유칼립투스의 왕이자 호주 식물세계의 황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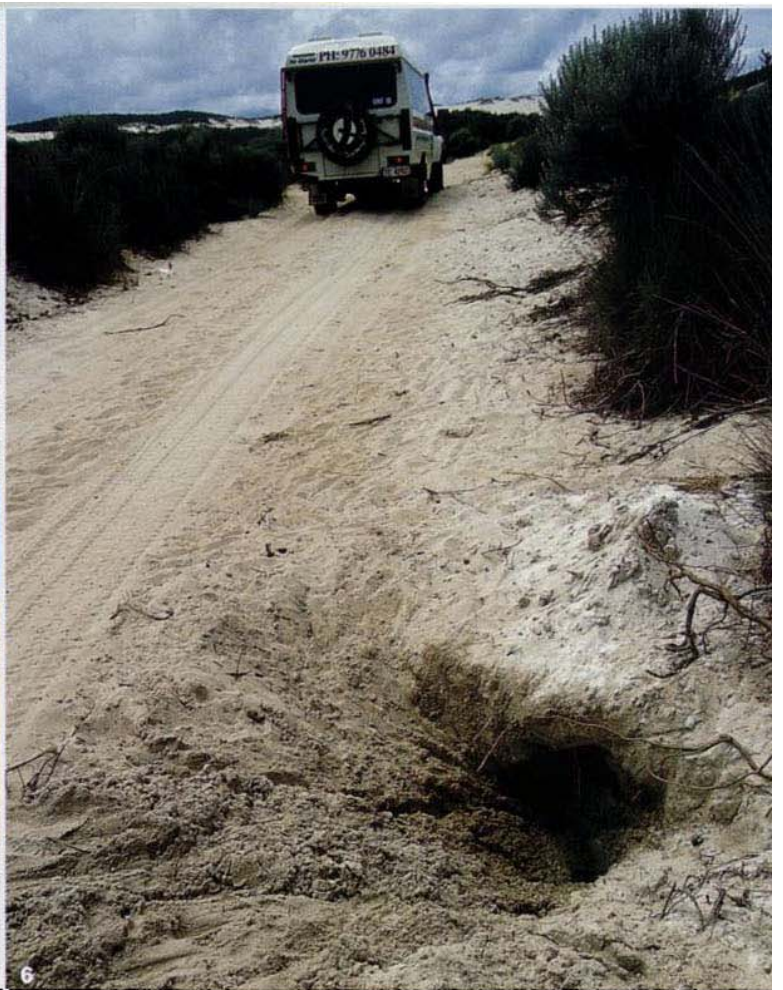
사람들은 호주 서남부를 ‘캐리의 나라’라고 부른다. 캐리의 나라

엔 글로세스터 국립공원, 왈폴 국립공원 등 수많은 국립공원, 수림보호지역이 산재해 있다. 캐리는 나무의 왕답게 그 자태가 수려하다. 수령이 400년, 500년 된, 서너 사람이 팔을 벌려 잡아야 될 듚직한 덩치에 하늘을 뚫을 듯이 곧게 90m나 치솟은 모습에서 위엄까지 느껴진다.

60억㎡에 달하는 드넓은 캐리의 나라엔 캐리의 가까운 친척들인 텡글스, 자라, 메리 같은 유칼립투스도 있지만 캐리의 세력에 비하면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 위엄에 찬 자이언트에게도 치명적인 적이 둘이나 있다.

그 첫 번째 적은 인간이다. 4만여 년 전부터 호주원주민인 에보리지니들이 이곳에 살면서 수림을 위해, 작은 판목의 열매를 따기 위해, 버섯 같은 걸 채취하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곤 했다. 1800년대에는 유럽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캐리는 엄청난 수난을 당한다. 백인들은 목장을 만들고 밭을 만들기 위해 캐리를 베어냈다. 이민자들이 몰려오며 항구의 독을 건설하고 다리를 놓고 집을 짓기 위해 캐리는 남벌되었고, 1900년대로 접어들며 이 지역이 목재가공품 산지로 떠오르며 캐리의 수난은 가속화 되었다.

이 때문에 1960년대 초 호주정부는 산림벌채를 전면 금지시켜 버렸다. 캐리의 나라에 용기종기 마을과 소읍들이 생기면서 산림이 직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나무를 잘라내서 당장 팔아먹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다. 드넓은 캐리 원시림이 관광자원이 되어 수많은 국내의 여행객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도 산림보존의 혜택이다. 캐리의 나라에 첫 번째 적이었던 인간은 이제 우호적인 동맹군이 되어 캐리보호에 앞장선다.



## 산불로부터 캐리 숲을 지켜라

그러나 캐리의 두 번째 적은 아직도 무서운 적이고, 아마도 영원히 화해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산불이다. 긴 안목에서 대자연의 섭리대로 보면 산불은 그 자체가 생명의 재창조를 의미한다. 노쇠한 자연생태계는 산불에 의해 지워져 새로운 생명들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어떤 종자는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야 비로소 발아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 속에 도시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고, 그리고 경작지도 만들며 몇 백 년 앞을 내다보는 대자연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겨 둘 수 없게 되었다. 캐리의 나라엔 산불방제 시스템이 1년 내내 밤낮없이 가동된다. 산불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나무 아래 땅바닥에 쌓인 짚감이다. 바로 낙엽, 나무껍질, 관목가지 등 산불의 연료가 되는 이런 쓰레기들이 문제다.

캐리 숲 1만㎡엔 18톤의 산불연료(?)가 깔려 있다. 따라서 건기(乾期)에는 산불연료 제거 작업이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갈퀴리로 끌어 모아 쓰레기 소각장으로 싣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로써 불을 막는 아이러니가 이루어진다. 바람 없는 조용한 날 불을 질러 산불연료를 태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소방경계 태세 하에 불은 캐리 숲의 낙엽과 나무껍질을 태운다. 그것도 못미더워 소방차가 뒤따른다.

발 디딜 틈도 없는 원시림의 낙엽을 모두 태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캐리의 나라엔 바둑판 모양의 산불방제 도로가 사통팔달 엮여져 수많은 블록으로 형성되어 산불이 나도 한 블록의 소실로 끝내도록 하고 있다. 도로가 다른 블록으로 불이 옮기는 것을 막는 역할과 함께 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도 돕는 것이다. 불로써 낙엽을 태우는 곳은 도로 옆이다.

다른 블록으로의 전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캐리의 나라 태고의 숲 속으로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는 환상 그 자체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펨버튼(Pemberton)의 4WD 오프로드 어드벤처일 것 같다. 펨버튼은 인구 800명의 조그만 동네다. '디스커버리 투어'(Discovery Tours : [www.pembertonwa.com](http://www.pembertonwa.com) 전화 08-9776-0484)의 사파리 가이드 그래엄은 안전과 서바이벌 훈련이수자격을 갖춘 15년 경력의 모험여행 전문가다. 그가 핸들을 잡고 나온 차는 토요타 랜드크루저 알카나(Arkana), 13인승 4WD 알카나는 단 두 사람만 태우고 35km 오프로드 여행길에 올랐다.

바람소리 새소리뿐인 적막강산, 하늘을 덮은 캐리 원시림 속으로 알카나는 요동치며 달렸을까, 울울창창한 숲길을 얼마나 달렸나, 갑자기 사막이 확 트인 시야를 펼친다. 하늘을 덮은 검푸른 숲과 노란 모래벌판은 너무나 강한 콘트라스트다. 남반구 최대의 내륙 샌드듀인 예가립은 바다까지 이어졌다. 모래언덕을 오르내리다 바닷가 해변을 달리자 아스팔트처럼 안락하다.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관광청 : [www.westernaustralia.com](http://www.westernaustralia.com)

· 캐세이 퍼시픽 예약전화 : (02)-311-2800 , [www.cathaypacific.com/kr](http://www.cathaypacific.com/kr)

- 1 샌드듀인(Sand dunes)으로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잘도 달린다
- 2 캐리의 나라 오프로드 드라이브는 환상적이다
- 3 피크닉 런치는 꿀맛이다
- 4 불로 불을 컨트롤하는 아이러니가 건기의 캐리의 나라에서는 일상사다
- 5 피너클 사이로 차가 달린다
- 6 캥거루들이 물을 먹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